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7. 19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佛, '24 파리올림픽 AI 기술로 테러 감지 및 예방
  - 7.14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기간중 경기장 주변에 AI 카메라를 설치, △이상 행동 △비정상적인 군중 급증 △무기의 존재 및 사용 등 8가지 상황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통해 테러 감지·예방에 활용 예정
- 영국, ISIS 선전물을 게시한 테러리스트 4년형 선고
  - 7.16 언론은 “영국 법원이 TikTok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9.11테러 찬양과 ISIS 선전내용 등을 제작하여 홍보한 20대 테러범을 테러 출판물 유포와 테러를 조장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했다”고 보도

#### 미주

- 美 「트럼프」前 대통령, 대선 유세 현장에서 피격
  - 7.14 언론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「도널드 트럼프」前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1명 사망·2명이 부상당했으며, 범인은 20세 남성 「토머스 매슈 크룩스\*」라고 보도
  - \* 同人是 펜실베이니아주 베설파크에 거주하는 공화당원으로 「트럼프」前 대통령과 120m가량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AR-15 공격용 소총을 사용
- 美 의회, 트럼프 피격 사건 관련 비밀경호국(SS) 조사 착수(이데일리)
  - 7.15 언론은 美 의회가 트럼프前 대통령의 경호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며, 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장에게 이달 22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
  - ※ 일각에서는 총격이 일어난 건물이 보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밀경호국이 세운 집회에 대한 보안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

## 아프리카

### ○ 소말리아, 수도에서 차량폭탄 테러로 9명 사망

- 7.15 언론은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로 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으며, 소말리아 국영 통신은 이번 공격이 알샤바브의 소행이라고 발표

※ 지난 13일에는 모가디슈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알샤바브 대원 5명이 탈옥 시도 중 총격전을 벌여 교도관 3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

## 중 동

### ○ 이라크, ISIS 창립자 부인 테러 혐의로 사형

- 7.11 언론은 이슬람국가(ISIS) 창립자 「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」의 여러 부인 중 한 명이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을 감금하는 등 ISIS 테러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

※ 알바그다디는 지난 '19년 10월 시리아의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미군 특수부대가 급습해 궁지에 몰리자 두 자녀를 끌어안은 채 자살폭탄 조끼를 터트리려 폭사

### ○ UAE 법원, 테러 혐의자 43명 종신형 선고

- 7.11 언론은 UAE에서 테러 조직에 連累된 혐의로 기소된 43명이 종신형에 처해졌으며, 테러를 목적으로 설립된 <sup>시리아 이슬람주의 반군 연합</sup> '정의·존엄위원회' 사건과 관련해 '무슬림형제단'\* 소속 53명을 유죄로 판결했다고 보도

\* 同 단체는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범아랍권 정치·사회단체로 UAE와 이집트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러시아 등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日本人, 수류탄 기내 반입하려다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

- 7.10 언론은 한 일본인 남성(41세)이 지난 9일 美 하와이 힐로 국제 공항에서 수류탄 2개를 기내에 반입하려다 하와이 경찰에 의해 1급 테러 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 있다고 보도

※ 하와이 폭발물처리반은 수류탄이 복제품으로 폭발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

독일 뮌헨 총기난사 테러

- '16.7.22 뮌헨의 쇼핑센터에서 이란계 독일인 「데이비드 알리 손볼리」 (男, 18세)가 무차별 총기 난사 테러를 자행, 청소년 등 9명 사망·36명 부상
  - 사건 당일 17:00경 테러범은 휴대하던 배낭에서 총기를 꺼내 시민들에게 난사한 후, 경찰이 추적하자 도주 중 현장 인근에서 자살
- 특히, 同 테러는 바이에른州 동근열차에서 ISIS 추종 아프간 난민(17세)의 도끼 공격 이후 불과 4일만에 발생, 독일내 테러 공포가 급격히 확산
- 독일연방 헌법수호청(BfV)은 ‘그간 「손볼리」가 반터키주의를 지지해 왔으며, 극우정당 ‘독일을 위한 대안(AfD, Alternative für Deutschland)’을 추종했다’고 발표하면서 극우테러일 가능성을 시사
- 사건 발생 직후, 「메르켈」 독일 총리는 「국가안보회의」 소집과 함께, “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다”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 표명
- ⇒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ISIS 등의 서방 테러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, 우리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테러단체 동향 주시 필요

테러 상식

< 독일을 위한 대안(AfD, Alternative für Deutschland) >

- (목표·결성) 독일내 우익대중주의, 유럽회의주의, 반이슬람, 독일 내셔널리즘 정당으로 「베른트 루케」, 「알렉산더 골랜드」, 前 기독교민주연합(CDU) 회원들이 유로존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2013년 설립



\* ('21.4月) AfD내 전체 조직, 獨.연방헌법수호청(BfV)의 공식 감시대상으로 지정

- (연계세력) 페기다(PEGIDA), 독일을 위한 청소년 대안(JA)
- (주요활동) '13.9, 제18대 독일 연방 하원 선거에서 유로존 탈퇴 공약으로 4.7% 득표  
'18.10, AfD(JA) 단체장, 히틀러 두둔 및 폴란드 침공 관련 역사왜곡  
'21.2, 쾰른 행정법원, BfV가 AfD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감시·조사토록 허가